

# 心鏡에 비친

자연계를 이루고 있는 온갖 생물들의 세계는, 저마다의 삶을 지니는 生命體들이 서로 얽히고, 또 재치있게 설켜서 生命을 영위하는 가운데 대자연속의 다른 부분들과 더불어 均衡과 調和를 이루는 짜임새, 즉 Web of life로 엮여져 있다. 이렇듯 生命의 열개는 저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音色을 지니는 온갖 樂器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은 오케스트라에 比喩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연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이어져 나가면서 이룩되는 자연의 현상은 樂士들이 악보에 맞추어 조심스럽게 연주되는 音律이 섬세하게 어우러져 훌륭한 和音을 이룰때, 때로는 가냘프게 또 때로는 우렁차게도 울려나와 우리를 恍惚한 경지로 몰아 넣는 심포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인간의 존재는 造物主에 의해 균형과 조화의 짜임새로 엮어진 자연계에서 펼쳐지는 莊嚴한 오케스트라의 한 구성 악기에 지나지 않으며, 한낱 樂士일 따름이다.

오케스트라 멤버중의 어느 하나 또는 몇가지 악기가 자신이 지니는 본래의 音色을 발휘할 수 없어 말은바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심포니의 연주는 제아무리 雄壯한 曲이라 해도, 또 名指揮를 받았다 하더라도 感興을 불러 일으킬 수 없을 것은 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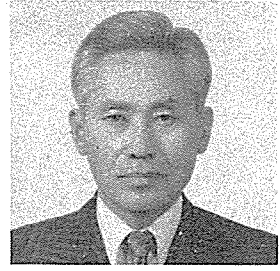
이렇듯 自然의 열개, 즉 自然의 生態系는 정밀하고도 교묘하게 짜여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수 많은 생물들과 무생물과의 사이에 끊임없이 주고 주어지는 에너지와 물질의 永遠한 흐름, 즉 flow in eternity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생태계가 지니는 秩序의 짜임새와 無限한 아름다움에 대하여 어느 詩人은 “그것은 어떤 이름난 교수의 名講義보다도 값진 것이며, 자연의 秩序야말로 인간의 영원한 배움터” 라고 찬양하고 있다.

자연생태계는 이렇듯 永續적이고 永遠하며 巨大한 장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갖는 五感의 感性으로는 그의 온 모습을 손에 쥐듯이 感知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크기때문에 벅차고 힘들다. 이를테면 크고 높은 山일수록 먼 발치에서는 全體가 보이지만 막상 그의 품속에 잠겨져 있어서는 오히려 크고 높음이 헤아려지지 않는 理致와 같다.

지난날의 뛰어난 音樂家들에 의한 장엄한 名曲이나, 또는 여러 저명했던 繪畫家들에 의한 華奢한 創作品들은 거의 모두가 대자연의 자연생태계에서 素材를 찾아 이룩되었으며(=美意識), 인간의 精神生活이나 倫理觀, 또는 宗教觀에 뿌리박은 신앙심의 發現은 자연에 歸依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여 展開(=善意識)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참다운 眞理(=眞意識)는 또한 자연의 생태계를 배경으로 하는 터전위에 構築된다고 말할 수 있다.

# 自然의 열개



鄭 英 昊  
(韓國植物分類學會長)

그러므로 創造의 어머니인 대자연은 진실로 어떠한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인간의 슬기로서 꼭 아껴지고 또한 지켜져야 하겠다.

이렇듯 현대의 찬란한 文化와 눈부신 文明은 분명히 인간의 슬기와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룩되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오늘날의 문화와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主體는 오로지 인간만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의 생태계가 그의 底邊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예사로 보아 넘길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자연을 保護한다던가, 또는 환경을 保全한다던가 하는 과제들은 결국 인간 스스로의 存立을 위하여서 취해지는 조치이기도 한 것이다.

벌써 십여년전인 1970年 1月, 그때 미합중국의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씨는 自然保護白書를 통해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和睦하고, 또 기왕에 자연생태계를 侵害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相應하는 댓가를 辯償하지 않는限, 우리는 자연의 무서운 報復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아무런 方法이 없는 것이다.”라고 闡明한 사실을 想起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뿌리내린 인간본성의 發現만이 자연생태계 保全의 關鍵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을 향한 巨視의인 비전과 淡淡한 心境으로 자연에서 演出되고 있는 그대로의 움직임을 마음의 거울(=心鏡)에 비쳐 자연을 올바르게 보고 그 우렁찬 生命力的 내용을 알아 차려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무르익어서 인간 모두의 마음속에 자연계의 神秘스러운 眞實이 새겨질때 진정한 自然愛護의 心性이 싹트게 되며, 또 이러한 심성이 자라고 커 나갈때에 毀損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자연이 합리적으로 지켜지는 슬기와 최선의 방법이 비로소 案出되는 것이다.

우리는 앞길을 뚫고 나가기 어려울때에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는 마음으로부터의 벼슬 알고 있다. 그는 다름아닌, 그토록 苛酷했던 고난의 歷程과 對峙해서 그의 命運을 건 오랜 세월에 걸친 超人的인 노력과 분투로 이겨 내어서 마침내 그에게 주어진 運命을 극복하고, 끝내 “歡喜—그의 交響曲 第九番”의 노래를 높이 소리 질러서 위대해졌던 음악의 큰 별 “루트비히·반·베토벤이 바로 그이인 것이다. 장하고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先導者 “베토벤”은 「人間이여, 그대 자신을 도우라!」고 외쳤다. 지금 우리는 자연과 인간과의 사이에 가장 올바르게 참다운, 그리고 인간의 인간다움에 부끄러움이 없는 本性에 비추어서 바람직한 인간적인 姿勢, 곧 “새로운 類型의 人間像(The New Type of Human Image)”으로 다듬어 나가야 할때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 인간은 이제 그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돕기 위해 정녕코 자연생태계를 아끼고 키워 사랑과 더불어 지켜야 할 時點에 놓여 있는 것이다.